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어라

☞ 19면에서 계속

아니고' 그런 게 어딨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가 나같이 살라고 하네." 이랬으니 하나도 버릴 게 없네, 아니 할 게 없고. 할 것이 따로 없어.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충실히 진실하게 하는 것이 그냥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 여여함이야.

질문자5(남) 너무나 고맙습니다.

큰스님 그 책을 누가 보고 생각을 하는 놈이 어딨는지 그것만 알면 돼. 하하하.

질문자6(남) 반갑습니다. 견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큰스님 지금 말하는 건 누가 하는 놈인가?

질문자6(남) '말하는 건 누가 하는가?' 골똘히 생각해 봤었는데 결국은 제 생각으로 알아냈다고 생각한 게 결국은 또 생각이고, 그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보통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그 깨어 있음이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의식 위에 또 생각이 있고 그 생각으로….

큰스님 허허허, 그런 걸 그렇게 따지고 들면 죽지 못해. 그런 걸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세상에 들어가서 죽은 일을 전부 알아내나, 응? 하이, 참내! 그렇게 영리해 가지고 어떻게 죽어?

자비라는 게 왜 생긴 줄 아나? 악이든지 선이든지, 잘못된 거든지 잘된 거든지 모든 거를 불문에 부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 자비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할 때 무조건이지 이익을 바라고 하나? 그게 자비야. 무조건이지.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믿고. 아니, 그렇게 이해타산을 하고 그냥 굴리면 머리로 굴리는 거지 그게 마음으로 샘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야.

좀 푹 쉬어야 되겠어. 푹 거기다가 놓는 것이, 모든 일체 아는 것이든지 모르는 것이든지 다 놓는 것이 쉬는 거다. 좀 바보가 돼 봐, 응? 바보가 되란다고 또 일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지 말고, 일하고 알고 있고 영리하게 머리가 돌아가고 이러는 걸 다 거기에, '네놈만이 알 수 있다.' 하고, '깨달음도 거기서만이 깨닫게 하는 거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다.' 하고 그냥 다 놔 버리는 것이야.

질문자6(남) 감사합니다.

질문자7(남) 깨달음을 얻는 데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시중 서점에 가면 자칭 깨달았다 하면서 책을 많이 펴내고 사람을 모집하던데 그 사람들이 진짜 깨달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도 될는지요.

큰스님 하하하. (대중 웃음) 참, 이게 웃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 거죠. 허허허. 이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사람은 수없이 경험을 하고 진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릇되고 잘못되고 잘되고는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경학이든 또는 그 모든 기복이든 내 마음속에 나로부터 생겼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나로부터. 나부터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없곤 아무것도 없어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따라야 될까 안 따라야 될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지 누구가 따르지 말아라, 따라라 하는 게 없어. 스스로지. 그래서 봐서 이게 옳은 말이냐, 옳은 행을 하느냐, 옳은 뜻이냐 이것을 봐서 따라라 이거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질문자7(남) 그런데 사람들이 쓴 책을 봐도 다 맞는 말 같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 뵙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깐 맞는 말이든지 안 맞는 말이든지 무조건 다, 맞는 말이라도 다 맡겨 놓고 나부터 찾아요.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질문자7(남) 스승이 있으면 더 빨리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큰스님 허허. 이거 봐요. 이 컵 하나 나오는 데도 이거 사람을 빼놓고도 네 가지가 한데 합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독불장군이 있답니까? 댁도 지금 살아나가는 게 같이 주고 먹고 주고받고 이러고 사는 거지, 댁이 혼자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혼자 산다면 옷도 입지 말아야 하지 먹지도 말아야 하지, 전부 같이 살면서 하여튼 모든 것을 그렇게 놓고 가요.

질문자7(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무조건, 아는 것도 전부.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고 가장구가 있고 잎새가 있구나. 그러니깐 뿌리에 자꾸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뿌리를 믿고 거기에 맡기면 물 주는 거와 같으니깐.

질문자8(남)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교직에 있기 때문에 늘 한마음 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또 경험해 가면서 즐겁고 환희에 찬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때때로 이 한마음 법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제가 경험을 해 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바가, 뭐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떠한 조그만 싹 트임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씩 학생들에게 연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악이든 선이든, 잘못된 거든 잘된 거든 모든 걸 불문에 부치고
> 무조건 사랑하는 게 자비입니다.
>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무조건이지 이익을 바라고 하나요?
> 그게 자비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열심히 전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스스로 아직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스스로를 알 때까지 자제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부자 다 된 연후에 부모한테 효도하려면 효도 못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깐 벌어 가면서, 없든 있든 그저 남한테 이익하게 하는 노릇은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그저 조그마한 거라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커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커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네.

질문자9(여) 저는 강릉에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별 할 말도 없었는데요, 제가 스님을 지금 뵙고 싶은 심정으로 나왔거든요. 오는 도중에 눈을 감고 있는데 이 가슴에서 불을 켜요. 빨간 불을 켰는데 그 가슴 불을 한참 동안 봤는데 이상해서 눈을 뜨고 있으니까 거울이 또 비쳐요. 거울이 네모가 비쳤다가 그다음에는 둥근 거울이 돼서 산소가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저기 부처님 계시는 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도중에 느낀 걸 스님께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보이는 것도 속에서 화해서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다. 화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거기 되놓아야 합니다. 그거를 좋다고 바깥으로 이렇게 끄달리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모든 게 있다면 그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환상이니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 업식이 지은 환상이니까 모든 거를 거기다가 다시 놓고 거기서 무르익혀야 맛이 나지 무르익히지 않는다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거기다가 다시 되놓으십시오. 다시 맡기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십시오. 다 감사하다고 하고, 그 뜻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게 보였다고 해서 좋아라 하고 그러진 마시고.

질문자10(여) 스님, 저는 이때까지 참 바보로 살았는데 이 바보가 스님 괴롭히러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너무 기쁨이 있어서 오늘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인사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 아버지가 또 이 뒷골이 자꾸 쑤시고 당기고 아프다 그래서, 부산 사는데 어젯밤에 오라 했더니 오기는 왔는데 새벽에 못 따라왔어요. 그래 하도 게을러서 새벽에 나오며 "게을러 빠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하겠노?" 그럭하고 고만 왔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본인의 육체 속에 모든 그 업식이 다 들어 있으니깐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질문자10(여)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바보스럽게 살았습니다. 저는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고요, 경도 못 읽어 보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도 부처님 진리를….

큰스님 알고 보면 높은 산만 있다고 그래서 높은 게 아닙니다. 얕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보면 평등한 겁니다.

질문자11(여) 스님, 저는요.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피가 안 통하고 다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큰스님 그것도 관하는 걸 똑바로 알아서 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 진실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이러쿵저러쿵하는 거지, 진실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질문자12(여) 친견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늘 살았는데 작년부터 디스크도 오고 그래서, 스님을 친견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친견하고 나면 제가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큰스님 그렇게 해 보세요. 여직껏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 보세요. 자기가 자기 시자를 심부름을 시키려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 하죠.

동천에 청새는 서천을 대하고
서천에 쪽새는 청새를 대하니
만공에 피리 소리 온 누리를 뒤덮는데
앞 뒤 중간도 없는 것
한 땅 딛은 한 발도 없어라.

(합장하시고 물을 드신 후, 오른손으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다시 합장하심.)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2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